

# EBS 직접연계 감소... 공통과목 수학, 문과생 체감난이도 ↑

## 문이과통합 첫 적용 6월 모의평가

국어 선택과목에 따라 난이도 갈려 수학 이과 평이, 문과 어려운 수준 영어 EBS 연계 비율 50%로 감소

‘문이과 통합’ 취지가 처음 적용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 모두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는 EBS 직접연계가 사라지고 연계 비율도 50%로 감소하면서 다시 어려워져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  
3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를 분석해보면,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 독서파트에서 새로운 유형 지문이 추가되는 등 어렵게 출제됐다. 기존 독서파트에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특정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지문 내용이 추가됐다. 문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공통과목은 통합수능 전환후인 지난 4월 교육청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도 수능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매체가 화법과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같은 점수를 받고도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3, 4월 모의고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에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이 점수폭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큰 관심”이라며 “본 수능에

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 또한 금년도 수능에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 ‘수학’ 공통과목, 문과 상위권 학생에 어려워

수학 공통과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객관식 킬러문항 15번(삼각함수), 주관식 킬러문항 22번(미분)에서 상당히 고전했을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객관식 14번(미분) 문항도 문과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게 킬러문항인 15번, 22번 모두 예년 수준보다는 평이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능에서도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간 유불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발생할 경우 같은 점수를 받고도 미적분 선택 학생이 확률과통계 선택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57점, 확률과통계는 150점이었고, 4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47점, 확률과통계는 142점으로 모두 미적분 선택 학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의평가 수학과형 선택자(38.6%)가 본 수능에선 34.3%로 이과에서 문과로 갈아탄 경우가 약 4% 발생했지만, 올해 통합수능 상황에서는 이과 선택과목 학생이 문과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추정도 나온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정용관 총원장은 “작년 나형에서만 출제됐던 수2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출제되면서 작년 수능과 6월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수1 과목은 수능과 비교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은 미적분이 다소 어렵고 기하와 확률과통계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유불리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절대평가 ‘영어’, 다시 어려워지나

수능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영향은 영어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BS 직접연계가 없어지고 연계비율도 50%로 축소돼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는 전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12.7%였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1등급자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교육청 모의평가 1등급자는 3.7%, 4월 모의평가 1등급은 6.1%였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최저학력기준 충족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2018학년도 첫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첫 해 10.0%로 높아졌다가, 2019학년도 5.3%로 급감, 2020학년도 7.4%, 2021학년도 12.7%로 매해 널뜨기 추세를 보이는 상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선 34번(빈칸추론), 36번(글의 순서), 39번(문장삽입)이 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스터디교육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직접연계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으며, 간접연계 문항(소재 활용)을 출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수험생들 입장에서 한 번 읽어 보았던 익숙한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했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8개사업 과제선정 결과 발표

# 대학 연구소 33곳, 9년간 연평균 7억씩 지원

### 지역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점 박사과정생 355명 연 2000만원 지원

대학 연구소 33곳이 연평균 7억원씩 최장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또,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는 박사급 연구자 1668명과 지역 대학 연구자와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학문분야 연구자 611명이 신규로 정부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8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연구 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연구 여건이 열악한 비전임 연구자, 보호분야 지역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55명에게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국외연수자 250명에

게는 연간 4500만원을 지원해 5년 이내 박사취득을 지원한다. 창의·도전연구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1063명은 연간 70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지난 1980년부터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는 105개 연구소가 신청해 울산대 ‘화학산업융합연구소’ 등 최종 33개 연구소가 신규 선정됐다. 선정 연구소는 연평균 7억원(자율운영형 11억원)을 최대 9년간 지원받는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 숙명여대, 3공 인문학 주제 독후감 공모전

내달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숙명여자대학교가 내달 31일까지 서울시민과 숙명여대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전 ‘협오사회, 공감인문학’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와 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혐오문제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감(共感), ‘공조(共助), ‘공존(共存)’이라는 ‘3공(共) 인문학’을 공모전의 대주제로 설정해 지역 사회와 시민이 공



존하는 인문 연대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모 부문은 ‘일반 시민’과 ‘숙명여대학부생’으로 나뉘며, 서울시민이거나 숙명여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추천 도서 95권’ 중 1권을 선택해서 3000자 이상, 5000자 이하 독후감을 작성한 후 참가 신청서와 함께 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22일 입학전형 설명회 개최

건국대학교 입학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2022학년도 건국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22일과 7월 24일 입학전형설명회 ‘ASK:U’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영향으로 대면방식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2학년도 전형 및 수시 전형 준비 방법 안내 ▲재학생 합격사례 발표 ▲입학사정관과 합격생이 함께하는 ‘입학토크쇼’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 ‘표대학 톱100’ 서울대 9위 등 12개대 안착

### THE ‘2021 아시아 대학 순위’

세종대 순위 급상승... 첫 50위권 진입

세계 대학 평가 기관 THE(The Higher Education)가 공개한 ‘2021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국내 대학 12곳이 상위 100위에 들었다. 서울대는 6년 연속 아시아 9위를 차지하며 국내 1위를 기록했다.

THE가 2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대학 순위에 따르면 국내 1위부터 10위는 ▲서울대(9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3위) ▲성균관대(14위) ▲포스텍(포항공대, 18위)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21위) ▲고려대(22위) ▲연세대(24위) ▲경희대(29위) ▲한양대(42위) ▲세종대(46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74위) ▲중앙대(98위)가 차지했다.

THE 대학평가는 교육·연구·국제화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다. QS 세계대학평가,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힌다.

올해 THE 아시아대학평가는 아시아 30개국 551개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논문당 피인용 수(30%) ▲연구실적(30%) ▲교육여건(25%) ▲산업체 연구수입(7.5%) ▲국제화 수준(7.5%)의 5개 지표로 이뤄졌다.

국내 10위권 내에 오른 세종대는 아시아 46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아시아 50위 이내에 진입했다. 지난해 78위에서 무려 32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특히 세종대는 지난해 논문 피인용도 75.4점에서, 올해

### (THE ‘2021 아시아 대학 순위’)

대학명	아시아 순위	국내 순위
서울대	9	1
카이스트	13	2
성균관대	14	3
포스텍	18	4
유니스트	21	5
고려대	22	6
연세대	24	7
경희대	29	8
한양대	42	9
세종대	46	10

/THE 홈페이지

는 86.9점 받으며 2년 연속 논문 피인용도 부문 국내 2위를 기록했다.

100~200위권대를 살펴보면 ▲건국대(108위) ▲울산대(111위) ▲이화여대(119위) ▲아주대(130위) ▲인하대(201~250위) 등 총 국내 21개 대학이 세계 25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종합대학 중 1위는 울산대다. 울산대는 국내 14위·아시아 111위로,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논문당 피인용수 국내 대학 8위를 기록했다. 2018년 처음 국내 순위에 진입한 유니스트는 국내 5위·아시아 21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아시아 1위는 중국 칭화대, 2위 중국 베이징대, 3위 싱가포르국립대, 4위 홍콩대, 5위 싱가포르 난양공대 순이었으며, 한국 1위인 서울대는 9위였다.

/이현진 기자